

NATIONAL
ASSOCIATION
FOR DISASTER
RELIEF 2004

전국재해구호협회



인사말



2003년 한해는 우리국민이 대형 재난, 재해로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이를 극복한 한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 대구에서 발생한 지하철 방화참사, 지난해 9월 추석연휴기간에 전국을 휩쓸고 간 태풍 매미는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슬픔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총 323명의 귀중한 인명(대구지하철참사 192명, 태풍매미 131명)을 잃었고 5조원에 이르는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대구지하철참사 유가족 및 태풍매미 등 수해를 당한 이웃들을 위해 범국민적 성금운동을 벌였고, 국민여러분들의 성원으로 각각 총 671억원과 1,068억원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대구지하철참사성금은 지난 2월부터 4차례에 걸쳐 대구시에 670억원이 전달됐습니다. 태풍매미성금은 1만9851세대 6만1844명의 피해자들에게 1,048억원이 전달됐고, 구호물품세트 등 총 176만2753점의 물품이 긴급지원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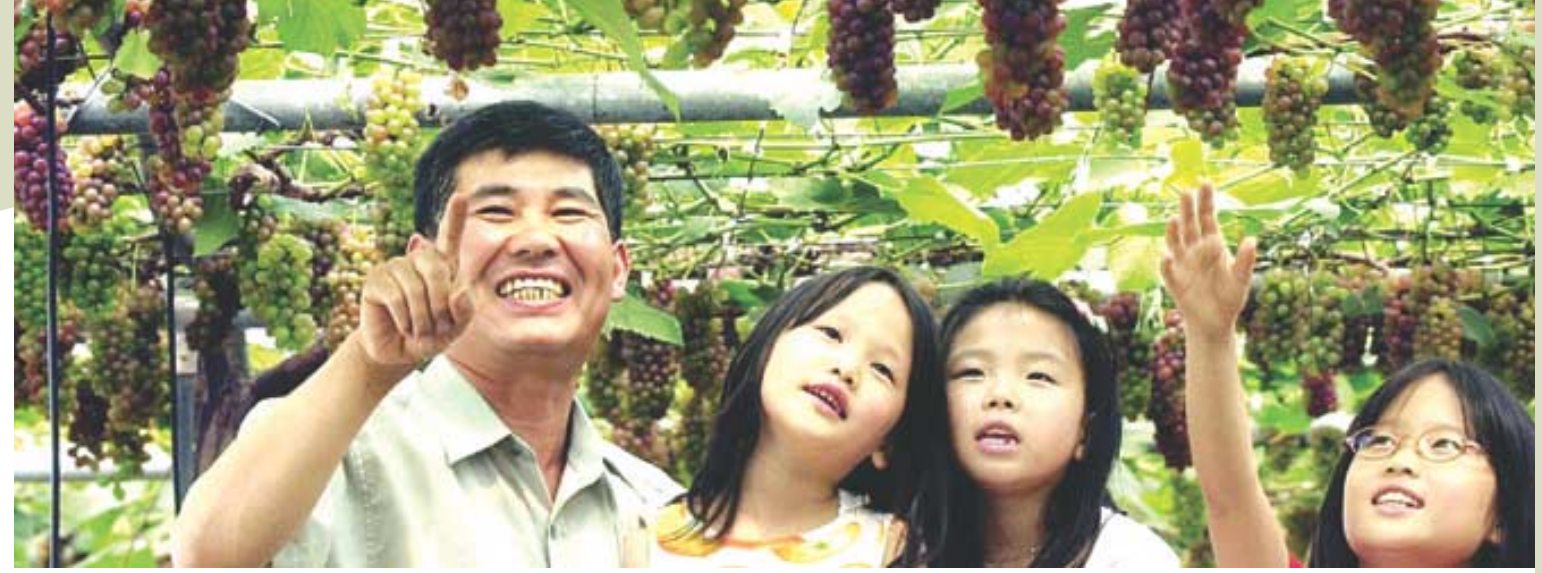
협회는 앞으로도 재해로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과 국민여러분들을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 6월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최 학 래

연보목차

- 인사말
- 목차
- 화보로 보는 2003년 재난재해현장



01 협회소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창립배경
 설립목적
 하는일
 조직도
 임원·회원 명단
 역대회장

02 2003년 구호현황
 대구지하철화재참사
 동해·서리·우박·냉해 등 농업피해
 호우피해
 태풍피해

03 구호활동현장
 구조, 숨막혔던 순간
 대구참사 희생자 가족
 대구참사 부상자
 대구시 사고대책본부 직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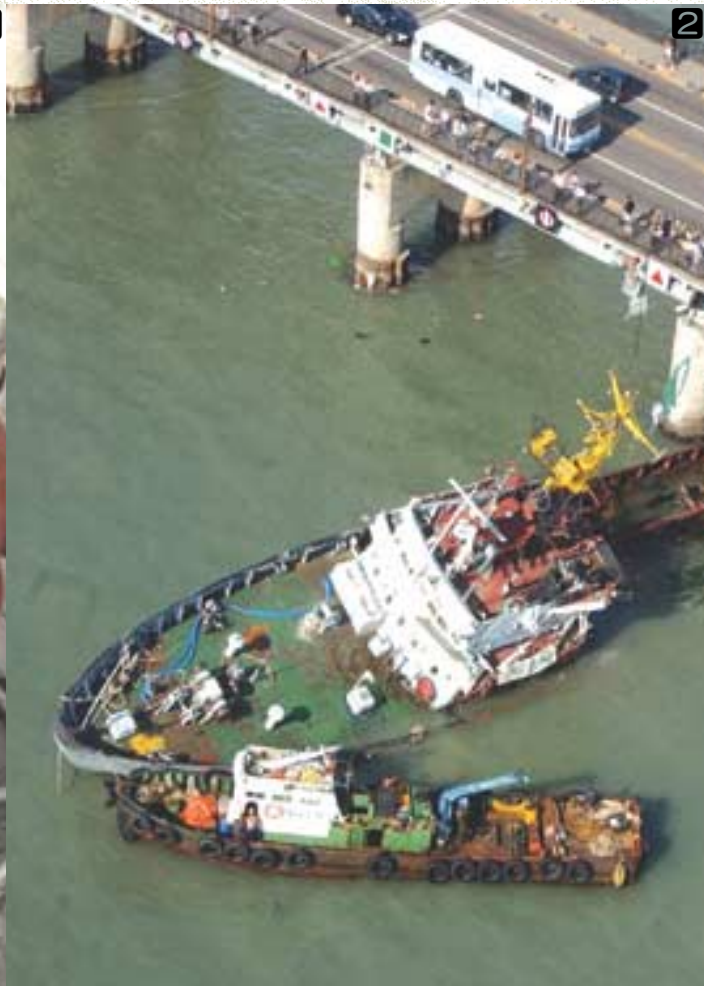
04 2003년 사랑과 정성의 현장
 자원봉사 그리고 사랑의 손길

05 화보로 보는 협회 1년사
 2003년 협회활동

06 재해구호활동 절차
 성금 기탁하기
 물품 기탁하기
 재해구호 자원봉사 참여하기
 의연금품 지원 절차
 2004년 구호계획

07 통계로 본 모금·집행 및 재해현황
 재해현황
 모금·집행현황

08 2003년 협회 보도일지
 신문방송에 비취진 협회모습



화보로 보는 2003년 재난재해현장



- ❶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부상자를 구조하고 있다.
- ❷ 강풍과 해일을 몰고온 태풍 '매미'가 휩쓸고 간 부산 영도다리 인근에 정박한 선박이 밀려오면서 침몰하고 다리 일부가 부서지는 피해를 입었다.
- ❸ 집중호우로 도로 전체가 강으로 변한 모습.
- ❹ 강풍을 몰고온 태풍 '매미'가 휩쓸고 간 부산 신감민항터미널의 대형 크레인 6대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주저앉아 있다.
- ❺ 태풍 '매미'가 몰고온 강풍과 집중호우로 9월 14일 경남 창원군 낙동강 남지교와 국도, 비닐하우스 등이 황토밭에 잠겨 있다.
- ❻ 지하철 방화 참사 당시 지옥같은 연기를 내뿜던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통풍구 위에 시민들이 바친 국화꽃이 쌓이고 있다.
- ❼ 폭설이 내린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을 연결하는 진고개에 월동장구를 갖추지 않은 차량이 멈춰서 있다.
- ❸ 태풍 '매미'가 강타한 경남 마산시 월영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근 못한 침수차량들이 보닛과 처문등을 열어둔채 햇빛에 말리고 있다.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지하철 화재로 192명이 숨지고 148명이 다친 참사현장 (左)

1년 뒤 중앙로역에서 열린 '2·18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1주기 범시민 추모식' 에서 참석자들이 흰 풍선을 날리고 있다. (右)



●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국민과 고통받는 재해이재민들 사이에서 아픔을 나누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교역할을 해왔습니다. 협회는 고통과 아픔을 겪는 재해이재민들에게 국민의 사랑과 정성을 전달하는 메신저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40여년동안 사랑의 기부문화를 일구어온 단체입니다.

협회는 국민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에 힘입어 태풍, 폭우, 폭설, 지하철참사 등 각종 재난재해 때마다 사랑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해왔습니다.

용기와 위로, 희망의 메신저역할을 해왔습니다.

재난, 재해로 가족과 집을 잃고 삶의 희망마저 놓쳐버린 이웃들에게 한마음으로 모아준 국민 여러분의 정성어린 성금은 이재민들이 다시 일어서는데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협회 임직원들은 한말의 밀알이 되겠다는 각오로 깨끗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성금과 물품이 전달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창립배경

1960년대초 가난과 질병속에서 고통받던 국민들에게 매년 예고없이 다가오는 호우와 태풍은 가뭄이나 힘겨운 삶을 지탱하던 서민들에게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정부도 별다른 대책이 없었고, 이에 대한 대비나 사후관리를 해줄만한 기관이나 단체도 없었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각 언론사에서 모집한 의연금품을 통합적으로 관리, 배분할 통합단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1961년 7월에 발생한 대규모 수해를 계기로 사회각계대표자들과 함께 '전국수해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구호사업의 일원화 발판을 마련, 협회창립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 설립목적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법정단체(재해구호법)로 정부와 역할을 분담해 불시에 발생하는 재해의 복구와 이재민 구호가 그 설립목적입니다.

재해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기 위해 국민의연금품을 모집·관리·배분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직접 구호활동에 참여,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 하는일

협회는 전국의 언론사가 주축이 되어 1961년 7월 전국수해대책위원회로 첫걸음을 내딛었고, 1964년 전국재해대책협회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재해복구와 이재민구호활동에 나섰습니다.

협회는 이후 40여년동안 7000여억원이상의 구호비와 총 3000여만점(4000억원상당)의 물품을 지원 하는등 국민과 재해, 재난 피해자들을 잇는 가교역할을 해왔고 명실상부한 민간 재해구호단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2002년 재해구호법개정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로 개칭, 법정단체로 거듭나면서 정부와 역할 분담을 통한 의연금품 모집 및 관리, 배분은 물론 재해현장에서의 자원봉사활동과 교육지원등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1) 재해의연금품 모집 및 배분

- ① 재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연금품 모집
- ② 기탁 의연금품 관리 및 배분

2) 구호물품 비축과 지원

- ①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를 위한 구호물품 준비와 물류센터운영
- ②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 지원

3) 재해구호 연구조사 및 홍보

- ① 재해구호에 관한 연구 조사 활동
- ② 국제교류 및 대외협력을 통한 선진화된 재해프로그램 개발
- ③ 기탁자 및 수혜자를 포함한 대국민 홍보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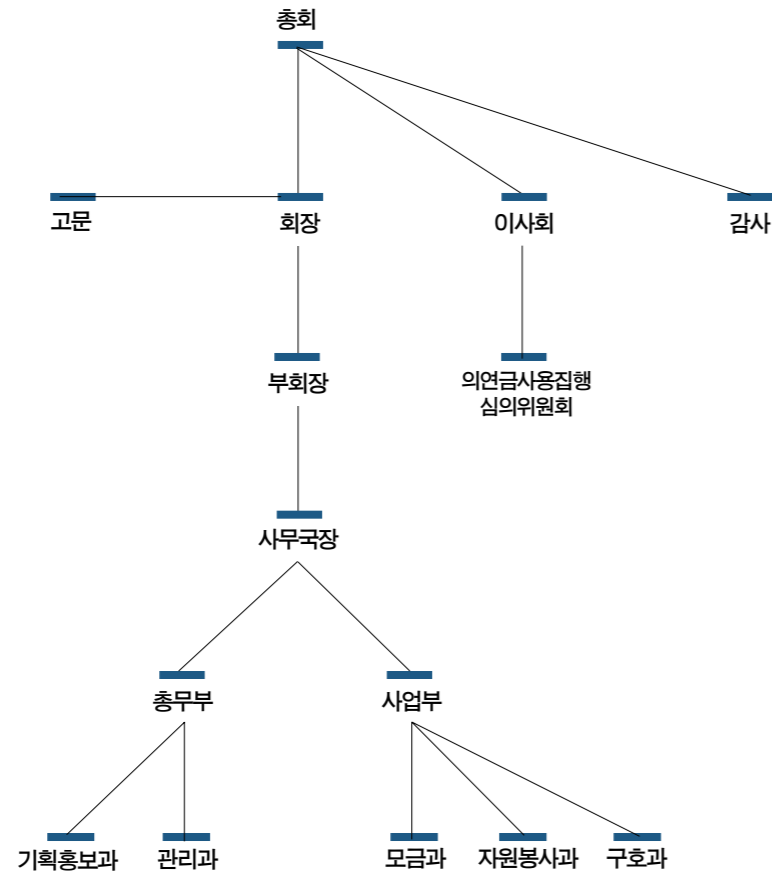
4) 재해구호자원봉사등 재해구호활동

- ① 협회 소속의 재해구호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 ② 재해구호 교육 관련사업

5) 응급구호세트 지원

- ① 재해현장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물품을 업선, 세트화하여 지원
- ② 재해발생시 응급구호세트 신속지원 가능한 체계적 시스템완비

●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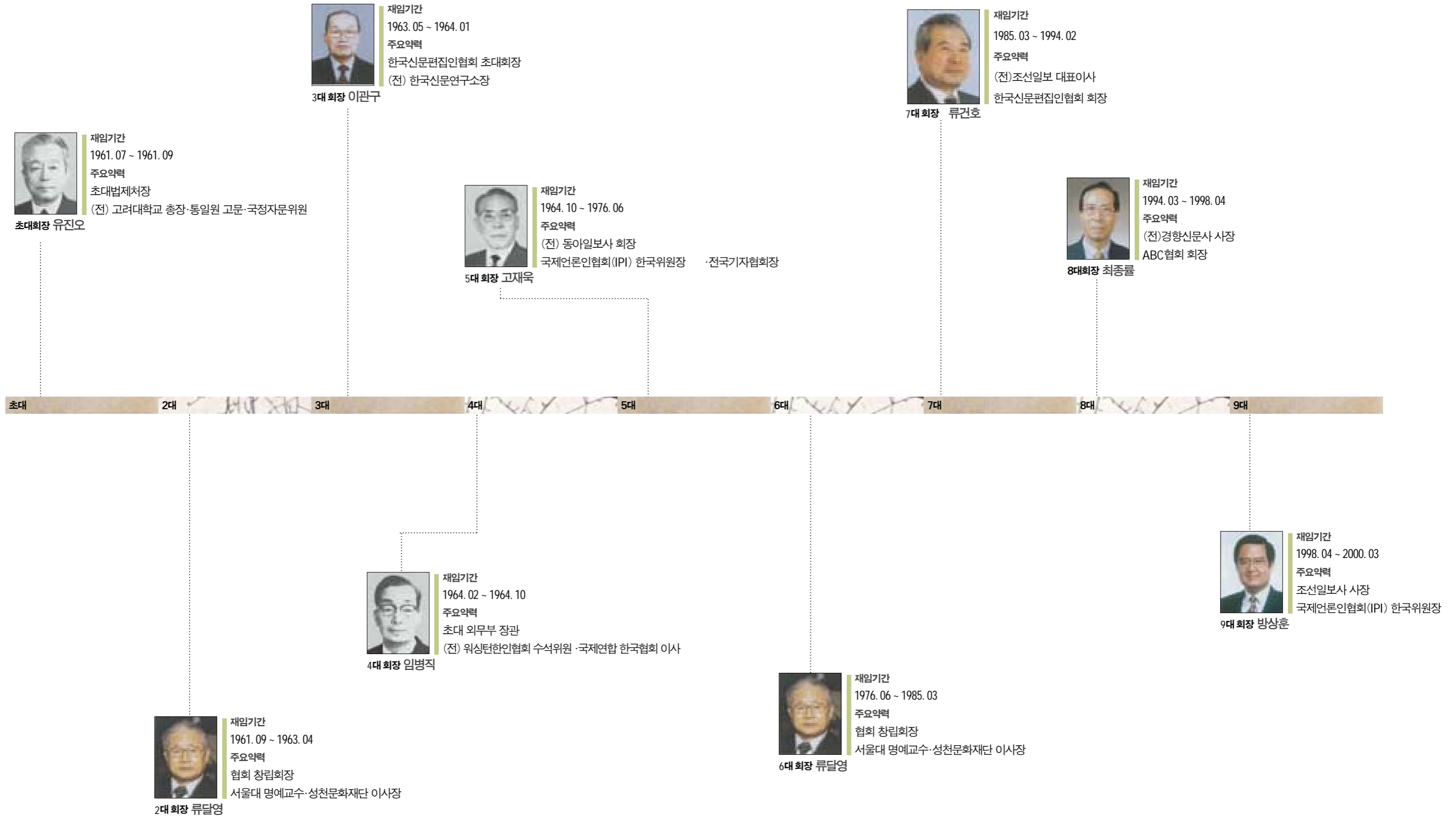
●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기관
회 장	최학래	한겨레신문사 고문
부회장	김대성	제주일보사 사장
"	김상기	대전문화방송 사장
이사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박수만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	법 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손길승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	송도균	(주) SBS 사장
"	오건환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	은방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이영구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	이 용	한국신문인크(주) 사장
"	장대환	매일경제신문사 회장
"	장재구	한국일보사 회장
"	정연주	한국방송공사 사장
"	채수연	우리교육발전연구원 원장
"	최문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사무총장
"	한남규	중앙일보 수석부사장
"	한중광	(주)현암 대표이사
감 사	서문훈	대신회계사무소 대표
"	손인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 회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기관
회 원	강대진	전국국장연합회 회장
"	김 진	대한주택공사 사장
"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	김정국	문화일보사 사장
"	김학준	동아일보사 사장
"	노승숙	국민일보사 사장
"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박한성	서울특별시 의사회 회장
"	사광기	세계일보 사장
"	이금희	(주)문화방송 사장
"	이시백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회장
"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이행자	대한YWCA연합회 회장
"	정대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	차석홍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	채수삼	서울신문사 사장
"	최용안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 역대회장



구회 평가항

2003년

● 대구 지하철 참사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구내.

중앙로역에 정차하던 1079호 전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정신질환자(56. 남)가 갑자기 인화물질을 든 우유통에 불을 붙여 1079호 전동차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이비규련속에서 대마침 마주오던 1080호 전동차까지 불이 붙어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하는 초유의 지하철 참사가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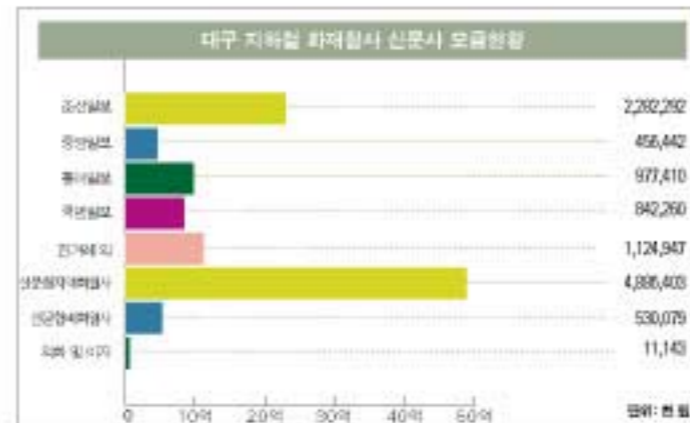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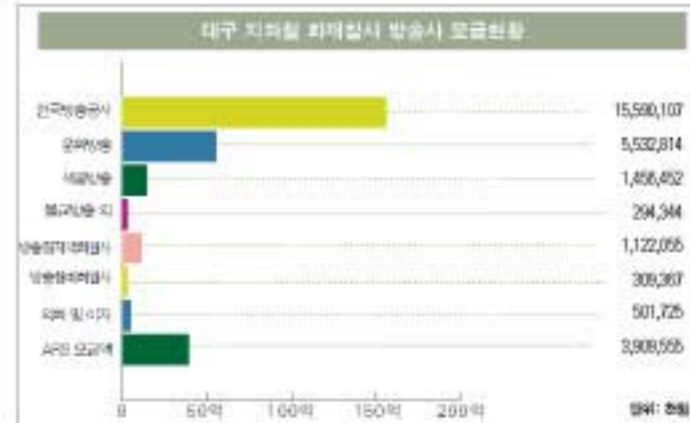
1) 사고일지

일지	내용
0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구 중앙로역 사고 발생. - 인명피해 : 339명 (사망 192명, 부상 148명) - 재산피해 : 4,708,845천원
02월 19일	대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희생자 및 유가족 등기 상급모금 실시
02월 26일	1차 상급 전달, 우선위로금 5,055,000천원 지원
03월 11일	희생자 및 유가족 등기 상급 모금 완료
03월 31일	희생자 및 유가족 등기 상급 모금 마감 - 4,000여개 기업과 단체, 450여명의 국민 참가 - 총 67,166,075천원(ARS포함) 모금
04월 07일	희생자들의 영복을 비는 49개 행사
05월 20일	2차 상급 전달, 위로금 60,605,000천원 지원
06월 15일	3차 상급 전달, 위로금 1,162,061천원 지원
06월 29일	사망자 192명·4 대한 합동 영결식 거행
10월 21일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을 제외한 전 구간 운행개시
12월 04일	대구고법 항소심 반하심 무기징역 선고
2004.02.18일	2·18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1주기 행사인 추모식
2004.03.04일	4차 상급 전달, 192,014천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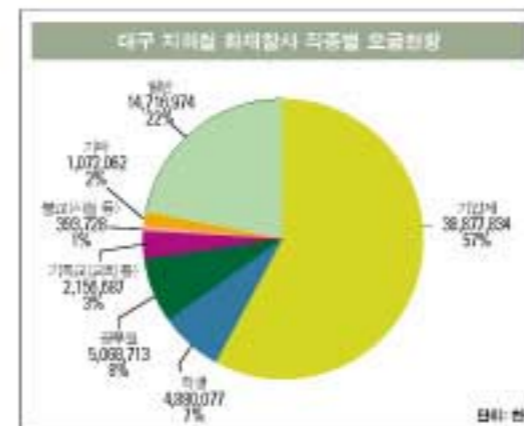


2) 모금 현황

대구 지하철 참사 상급 모금 및 지원 내역	
모금 액:	67,166,075천원 (ARS 3,906,555천원 포함)
지원 액:	67,014,075천원 (유가족 및 부상자 특별위로금 등으로 차감)
모집경비 등:	152,000천원 (구호비 및 광고비 등)
의연금 모집:	총 18,483명
의연금 지원:	총 18,443명



● 방송사 30,828건, 신문사 10,633건, 대구시사고대책본부 4,000건, 봉합회 451건, ARS 190만6752건으로 총 194만 2812건이 접수 671억6607만5천원이 모금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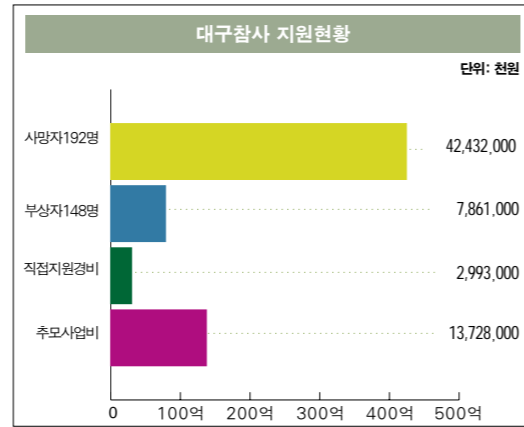
합계 67,166,07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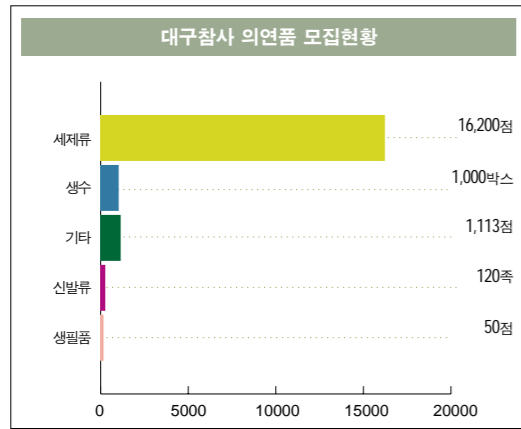
합계 67,166,075천원

3)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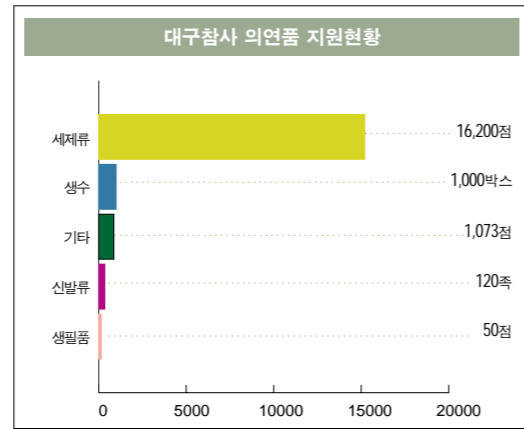
- 직접지원경비는 사망자 및 부상자 유가족 물품, 식대 등을 지칭
- 추모사업비는 묘역구성, 위령탑 건립 등을 지칭



4) 의연품 모집 및 지원현황



총모집 18,483점



총지원 18,44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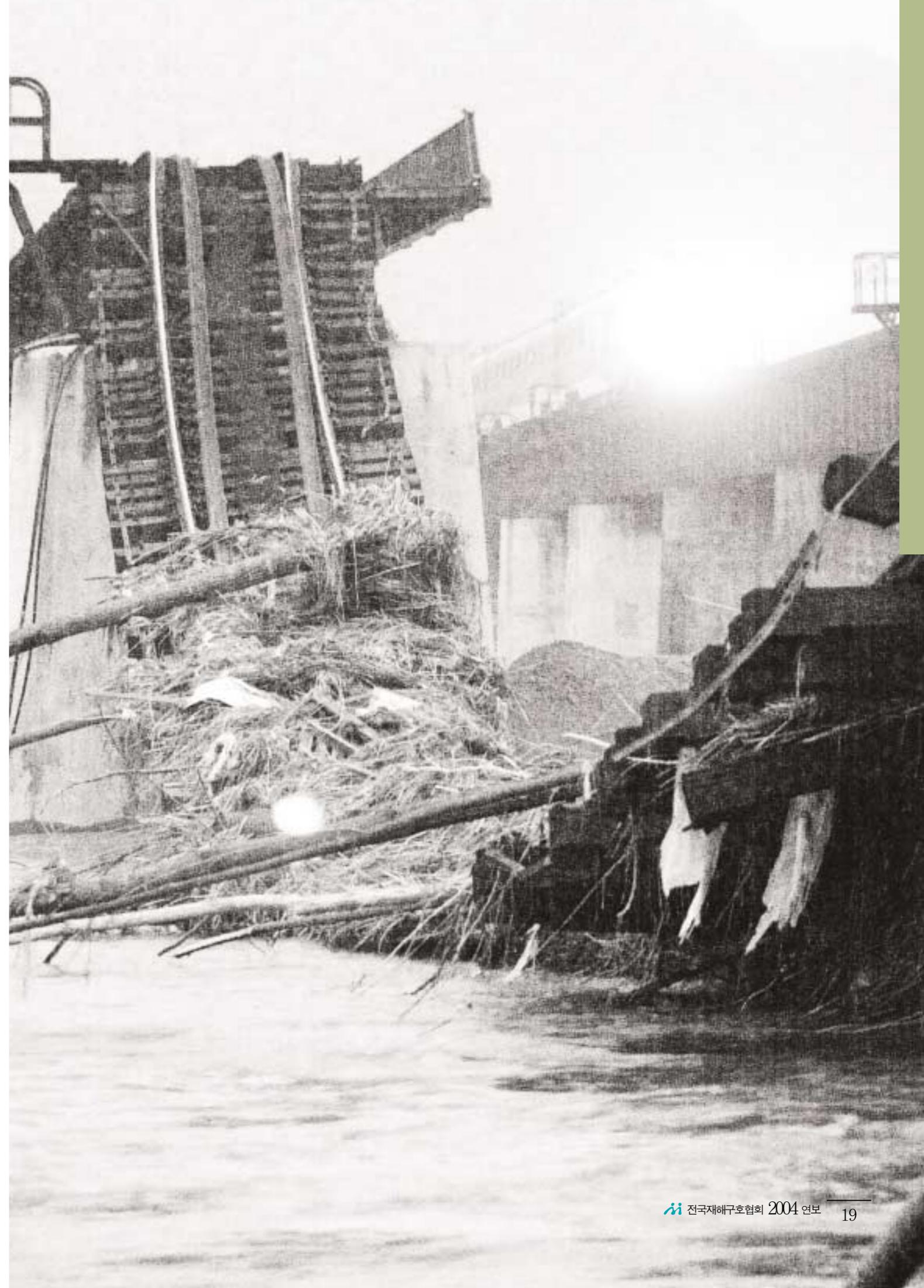
● 동해.서리.우박.냉해 등 농업피해

1) 1~5월 동해,서리,우박 등 농업피해

1~5월	동해, 서리, 우박 피해 발생
08월 04일	전북·경북 등 피해지역에 법정구호비 6,349천원 지원
09월 03일	전북·경북 등 피해지역에 연료비, 월동대책비, 명절위로금 등 68,600천원지원

1) 7~8월 냉해 등 농업피해

7월~8월	이상저온에 의한 냉해 발생
12월 30일	전북·전남·경북 등 피해지역에 법정구호비 192,634천원 지원
12월 30일	전북·전남·경북 등 벼냉해피해지역에 월동대책비, 명절위로금 등 1,335,740천원 지원



● 호우피해



1) 5.29~6.22 호우피해

05월 29일~06월 22일	경북·경남지역 지역 집중호우 피해 발생
09월 03일	경북·경남 등 피해지역에 연료비, 월동대책비, 명절위로금 등 14,700천원 지원
09월 26일	경북·경남 등 피해지역에 법정구호비 1,447천원 지원



2) 7.9~7.13 호우피해

07월 09일~13일	경북·경남·충북·충남 등 집중호우 피해 발생, 사망2명 주택피해 248세대
09월 03일	경북·경남·충북·충남 등 피해지역에 위로금 800,760천원 지원
11월 28일	경북·경남·충북·충남 등 피해지역에 법정구호비 821,158천원 지원



3) 7.22~7.25 호우피해

07월 22일~25일	충북·충남·전북·전남 등 집중 호우 피해 발생, 사망5명 주택피해 418세대
09월 03일	충북·충남·전북·전남 등 피해지역에 월동비·명절위로금 등 463,920천원 지원
09월 26일	충남·전북·전남 등 피해지역에 법정구호비 188,901천원 지원



4) 8.6~8.7 호우피해

08월 06일~07일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집중호우피해 발생, 주택침수 147세대
09월 03일	서울·경기·인천 등 피해지역에 위로금 89,180천원 지원
11월 28일	경기지역등 법정구호비 898천원 지원



5) 8.22~8.27 호우피해

08월 22일~27일	경기·강원·전북 등 집중 호우 피해 발생, 사망 3명 주택침수 8,818세대
10월 09일	경기·강원·전북 등 피해지역에 위로금 5,390,000천원 지원
10월 09일	경기·강원·전북 등 피해지역에 법정구호비 80,837천원 지원



● 태풍피해



1) 소델로(SOUELOR)

06월 18일	태풍 "소델로" 북상, 중심기압 965hPa(최대풍속 36m/s) 중형 태풍
06월 20일	오전 03시 울릉도 동쪽해상 통과 사망 2명 주택 침수 32세대 피해 발생
08월 04일	부산·울산·경북피해지역 법정구호비 15,650천원 지원
09월 03일	울산·경남·경북지역 위로금 39,200천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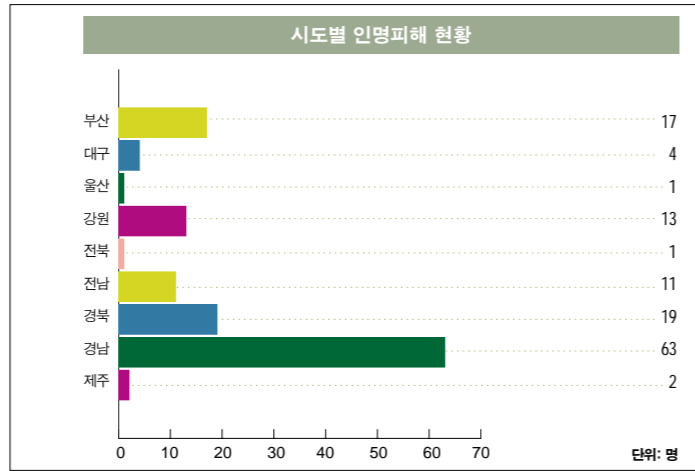


2) 매미(MAE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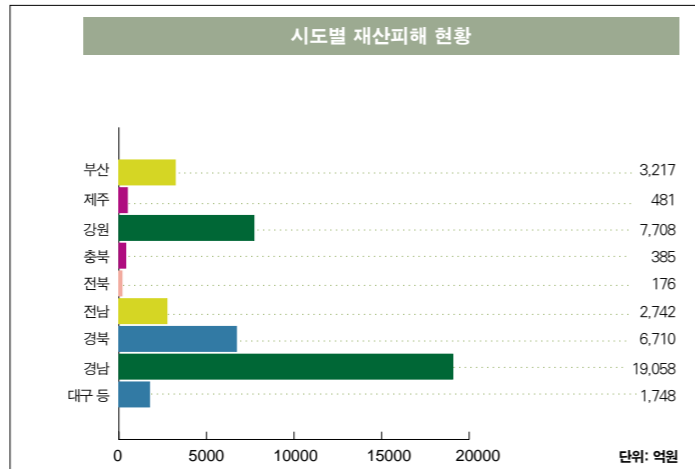
09월 12일	태풍 "매미" 북상, 중심기압 950hPa(최대풍속 60m/s), 초강력태풍
09월 13일	7시간 만에 내륙지방을 통과한 뒤 새벽 3시 동해안을 빠져나가면서 소멸 인명피해: 131명 (사망119, 실종 12) 이재민: 19,851세대 61,844명 재산피해: 4조 2,225억원 (사유시설 1조 2,828억원 공공시설 2조 9,397억원)
09월 29일	1차 성금전달, 우선지원 위로금 56,589,880천원 지원
10월 09일	2차 성금전달, 위로금 정산 추가지원액 5,149,660천원 지원
"	2차 성금전달, 법정구호비 7,518,181천원 지원
"	2차 성금전달, 특별재해지역 특별위로금 16,058,019천원 지원
11월 28일	3차 성금전달, 위로금 추가지원액 10,023,657천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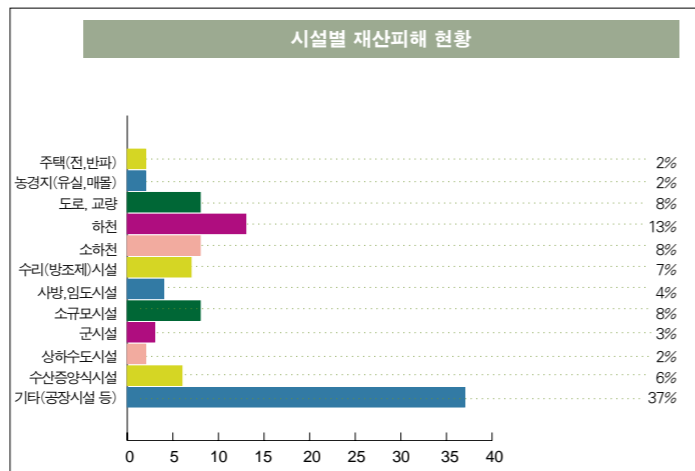
㉑. 태풍매미 시도별 피해현황



- 인명피해: 131명(사망 119명, 실종 12명)
- 이재민: 19,851세대 61,84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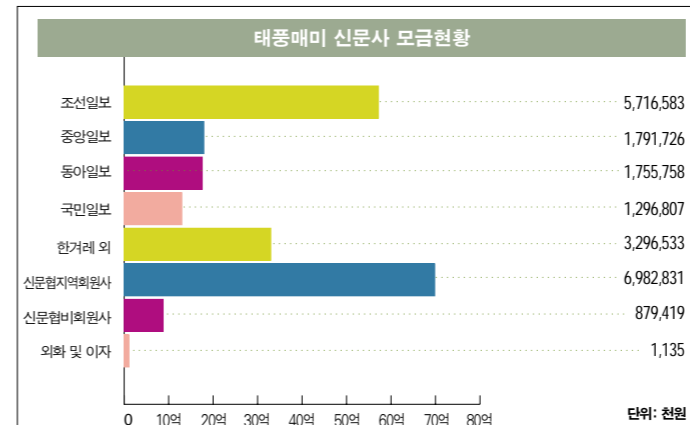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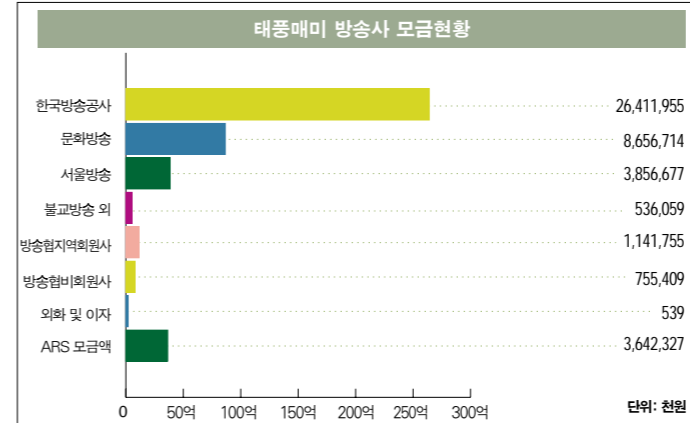


- 재산피해: 4조 2,225억원
- 사유시설 1조 2,828억원
- 공공시설 2조 9,397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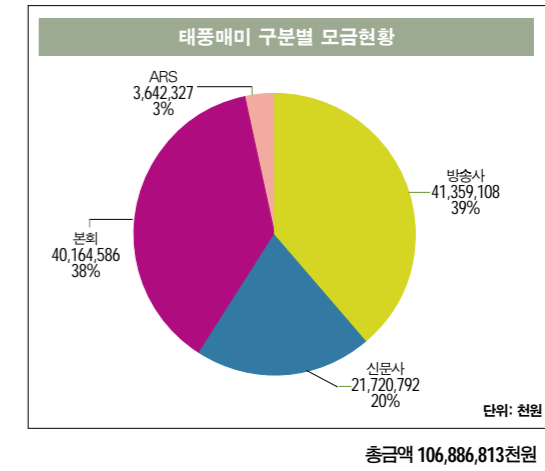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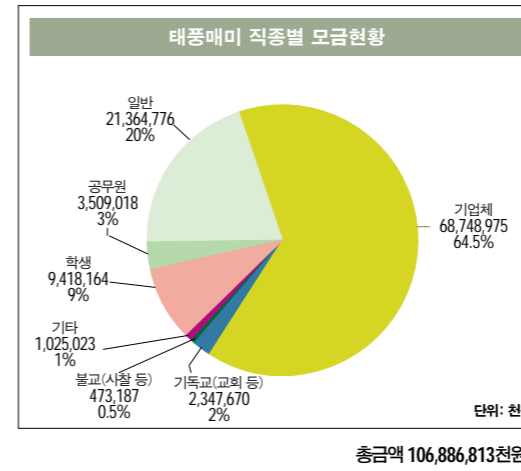


㉒. 태풍매미 모금현황

모 금 액: 106,886,813천원 (ARS 3,642,327천원 포함)
지 원 액: 104,849,371천원 (중·소규모 피해 구호비 9,509,974천원 포함)
지원잔액: 2,037,442천원 (향후 구호비 및 모집경비 등)
의연품 모집: 총 1,278,039점
의연품 지원: 총 1,744,3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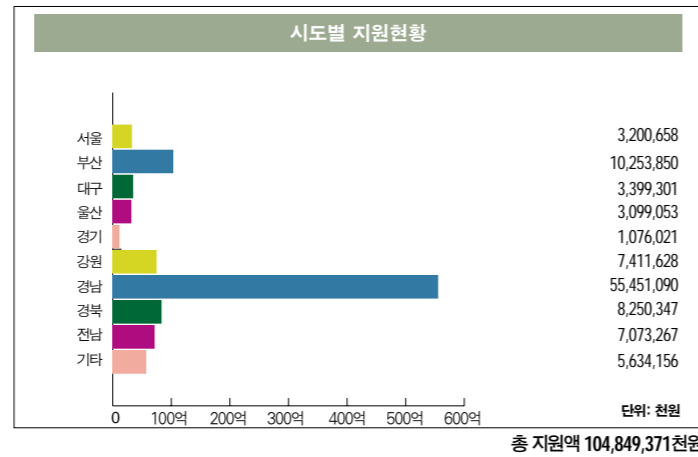


- 방송사 26,813건, 신문사 16,910건, 본 협회 2,459건, ARS 195만3689건으로 총 199만9871건이 접수 1068억8681만 3천원이 모금되었습니다.



㉔. 태풍매미 지원현황

● 시도별 지원현황



● 피해별 지원현황

- 인명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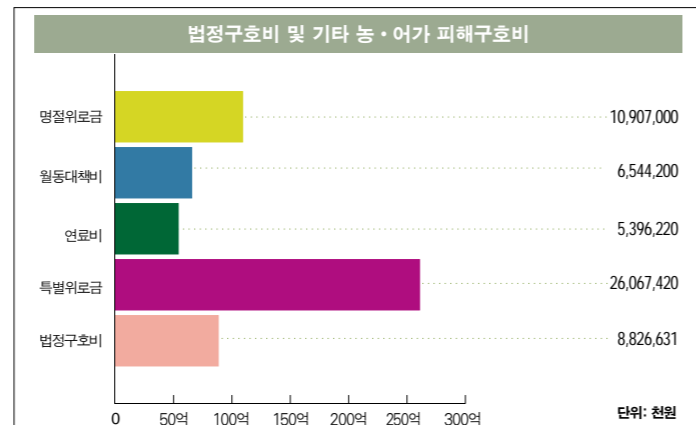
단위: 천원					
구분	지원기준	피해세대수	지원금액	구분	지원기준
사망·실종	세대	10,000	세대	143	1,430,000
부상	세대	5,000	세대	394	1,970,000

- 주택피해

단위: 천원					
구분	지원기준	피해세대수	지원금액	구분	지원기준
주택전파	세대	3,000	세대	1,765	5,295,000
주택반파	세대	1,500	세대	3,455	5,182,500
주택침수	세대	600	세대	55,384	33,230,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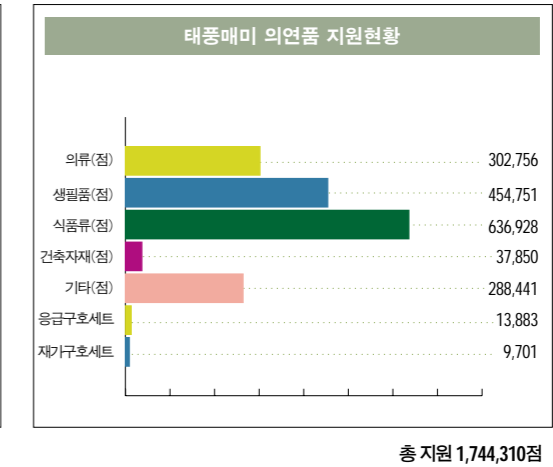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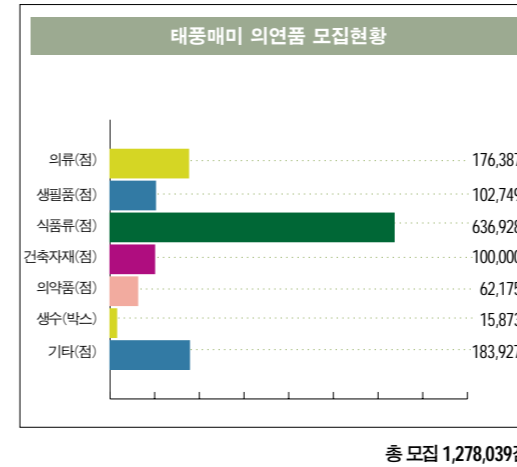
- 주택전파는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유실되거나 기둥, 벽체, 지붕 등이 파손되어 주택을 다시 짓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 주택반파는 재해로 인하여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괴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 주택침수는 재해로 인하여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점포, 가내공장 등)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법정구호비 및 기타 농·어가 피해 구호비등



- 명절위로금, 월동대책비, 연료비는 재해로 인하여 주택 전파 및 반파피해를 입은 세대, 농·어가 피해세대 등에 지원됩니다.
- 특별위로금은 재해로 인한 주택피해 및 2ha미만 농가 및 소규모 어가 50%이상 피해 세대, 피해를 입은 영세상가 세대의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 지원됩니다.
- 법정구호비는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재해로 인하여 사망·부상자 지원금, 주택 및 생계수단(농·축·어업) 피해를 입은 세대에 국민성금에서 일부 지원되는 위로금, 장기구호비, 생계보조비, 생계지원비 등을 의미합니다.
- 2003년 총 지원액은 1048억4937만1천원입니다.

㉕. 태풍매미 의연품 모집 및 지원현황



㉖.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7월 29일 ~ 8월 28일
재해구호 자원봉사 교육 실시
-서울, 경기, 경북 등 10개 지역 자원봉사센터소장, 실무자, 자원봉사자 등 총 7회에 걸쳐 606명의 자원봉사 리더 양성



9월 15일 ~ 20일
태풍매미 피해지역 조사
-재해발생 직후 일주일간 재해지역(삼척, 정선, 통영, 밀양, 마산)에 파견, 현지상황 파악 및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조사 작업 실시



9월 15일 ~ 10월 4일
자원봉사자 파견 및 봉사활동 지원
-31개 단체와 연계하여 약 1,1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재해지역으로 파견
-시흥시 자원봉사센터, 다음(DAUM) 카페 루사, 퍼니팜 등 자원봉사모임 회원들에게 장비, 조끼, 교통비 지원



구호활동의 현장

● 구조, 숨막혔던 순간



- 1 수해복구 자원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주택가에 쌓인 흙더미를 치우고 있다.
- 2 집중호우로 고립된 행락객이 119대원에 의해 구조되고 있는 모습.
- 3 폭우로 물바다가 되어버린 주택가에서 구호요원들이 고무보트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다.

● 인터뷰

“대구는 지하철 참사때 모은 국민성금 671억원 가운데 사망자에게 480억원을 지급(일괄적으로 2억2천1백만원)한테 이어 부상자들에게 78억원을 주고 남은 성금 142억원으로는 추모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대구참사희생자 유가족 허우석씨(52)
사망자 장남 허현씨(29)
국민성금 위로금 2억2천1백만원 수령



“죽어가고 있으니 기도해주세요.”

허우석씨의 장남인 허현씨(29)가 마지막 휴대폰을 통해 아버지에게 남긴 이승에서의 마지막 인사였다.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참사로 불바다가 된 지하철안에서 선교사의 꿈을 접고 사망한 허현씨의 이야기를 꺼내자 허씨는 침묵에 잠겼다.

그는 1년 전의 참사가 다시 떠오르는 듯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

“자식을 잃은 애비가 먼 할말이 있겠느냐, 지난 1년간 제정신이 아니었고 지금도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술에 다소 의지하고 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랄뿐이다.”

그는 그런 아픔을 겪은 뒤 태풍매미 때 대구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피해지역에 봉사를 나가 태풍피해 이재민들이나 유가족들의 아픔을 달래기도 했다고 말했다. 성금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나 손길, 진심어린 격려 등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다.

특히 그 계기는 대구참사 때 보여주신 국민들의 따뜻한 사랑과 정성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들의 위로금이 “물질 외에 따뜻한 사랑이 가득 담긴 크나큰 선물.”이라면서 “불행을 당한 이웃들에게 큰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들에게 다시한번 한없는 감사를 드린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박시환(40)
지하철참사로 1급장애자
국민성금 1억7천680만원 수령

박시환씨는 대구지하철 개통이후부터 서울의 명동이라 불리는 대구번화가 중앙로부근에서 11년째 뉴욕피자 조리부장을 하던 전문직 종사자였다.

그는 여느때처럼 2003년 2월 13일에도 출근을 하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

그러나 마주오던 차량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고, 불이 붙은 79호차량 반대편인 80호차량으로 불이 번져오자 다급하게 아내인 손혜정씨에게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다. 하지만 연락은 곧 끊겼다.

민지(12), 나영(8), 지윤(6)을 학교에 보내고 난 후 TV드라마를 지켜보다 난데없이 남편의 전화를 받은 손씨는 자전거를 타고 중앙로역으로 달려갔다. 중앙로역 주변은 온통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었고, 119 구조대원들과 앰블런스 20~30대가 인명구조작업에 긴급투입되고 있었다.

박씨는 영남대병원 응급실에 이송됐고 유독가스를 심하게 마셔 호흡기 내부의 성대가 마비된 상황이었다. 부상자중에서 가장 늦게 구조된 그는 인공호흡기로 며칠을 버티다 1주일만에 의식을 회복, 2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지금은 정상인의 50%정도의 폐활량을 회복했고 말도 조금 할 수 있게 됐다.

성대의 기능도 50%정도 회복됐지만 1급장애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박씨는 “지하철 참사 이후 가장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돼서 너무 고통스럽다.”면서 “그나마 국민성금 위로금으로 직장에 대한 압박감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하철사고수습단 수습반장
김상훈과장 및 최영호사무관등 직원들



“당시 이성을 잃은 지하철참사 희생자들을 대응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당연히 감내해야 할 부분이었기에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문제를 그들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대구지하철사고수습단 김상훈과장의 말이다.

대구 시민공설운동장 한편 구석에 자리잡은 지하철사고 수습반은 1년이 넘게 시청의 관련직원들이 파견돼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유가족들과 협상을 벌여왔다.

“초기에는 피해자 가족들과 대화조차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가족이나 부상자 가족들과 정도 들고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

교통정책과 최영호사무관이 말을 이었다. 그 역시 참사이후 수습대책위원회에 파견돼, 1년 이상의 기간을 활동해 온 터였다.

그는 1여년간의 수습대책반 생활을 하면서 느낀 짝막한 소회를 털어놓았다.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로 대구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절망과 고통의 짐을 벗는데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이번 참사는 정부 및 관련기관들이 재해재난 예방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됐다.”

그는 또 “특히 협회가 국민과 피해자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해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재해재난피해자들을 위해 진심과 성실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랑과 정성의 현장

2003년

2003년은 대구지하철 참사와 태풍 매미등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한없는 절망과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과 고통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기탁자와 자원봉사자들이 내민 따뜻한 사랑의 손길은 그들 가슴에 평생 간직될 것입니다.



재해를 당한 이웃들에게는 물질적 지원 못지않게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절실합니다.
 어려울때 함께하는 세상...
 사랑과 정성을 나누는 세상...
 전국재해구호협회가 함께 합니다.



(주)부영



FAG 한화베어링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배스킨라빈스



삼성그룹



(사)21세기여성CEO연합



덕유산악회



한진그룹



연합뉴스



로또 42회차 당첨자



수원뉴타운 주민일동



한국양회공업협회



롯데그룹



한국까르푸(주)



두산그룹



(주)신세계

지면사정상 모든 기탁자를 실지못하게 된 것을 양해바랍니다.

화보로 보는

● 전국재해구호협회 임직원들은

어려울때 함께 하는 세상,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2002년 법정단체로 거듭나면서 협회는 2003년 한 해 국민여러분들 곁에 더 가깝게 다가서기 위해, 일간스포츠·이랜드등 언론·기업들과 함께 직접 재해피해지역에 의류를 전달하기도 했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재해극복 공모전도 개최했습니다.

1월



2003년 이사회 정기총회 개최, 재해 구호활동 등 협회 전반적인 계획수립.

2월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발생, 참사부상자 및 유가족 위로성금 모집캠페인.

3월



재해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만개 구호물품 세트화작업.

7월



일반국민들에게 재해에 대한 경각심과 재해피해자들의 아픔을 나누고자 "함께해요, 재해극복" 공모전 개최, 표어·포스터·수기등 총 5000여편의 작품이 출품.

8월



태풍 소델로 및 1~5월 동해, 서리, 우박 피해등 위로금 전달.

9월



① 태풍매미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희생자들을 위한 성금모금 실시.
② 태풍매미 성금 565억원 긴급지원.

대구지하철참사·태풍매미등... 그 어느해보다도 우리국민에게 크나큰 고통과 아픔을 안겨다준 지난 한 해... 협회는 기탁자여러분이 모아주신 대구지하철참사 성금 671억원과 태풍매미성금 1068억원을 참사 유가족 및 이재민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담아 전달했습니다.

4월



전국재해구호협회직원 2003년 재해 구호활동 방안을 위한 워크샵 행사.

5월




최학래회장은 대구지하철참사이후 모금된 국민성금 656억원을 대구시 사 고대책본부장인 조해녕 대구시장에게 전달.

6월



2002년 법정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변경된 C관련 공사 실시, 재해구호전문기관으로 이미지 부각.

10월



① 일간스포츠, 이랜드와 공동으로 "사랑의 옷을 이웃에게" 캠페인 실시. 삼척, 태백, 영양등강원도 및 경북지역 태풍매미 피해 이재민 6,750세대에 총 44,260점의 의류지원.
② 태풍매미성금 287억원 2차 추가 지원.

11월



① 재해구호협회 역할과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 2003년 임원세미나 개최.
② 태풍매미 성금 100억원 3차 추가 지원.

12월



태풍매미 성금모금 활동에 적극 동참해준 방송협회·신문협회·고액기탁 27개 업체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탁자들에게 성금내역과 감사장 발송.

2003년

● **성금기탁하기**

- 1) ARS 이용하기
 - 한 통화당 2,000원
- 2) 은행계좌로 송금하기
- 3) 직접 방문기탁(방송사, 신문사, 본회)
- 4) 영수증 수령



● **물품기탁하기**

- 1) 기탁물품 종류, 상태, 수량 파악하기
- 2) 물품분류 및 포장하기
- 3) 협회 담당직원과 사전약속
 - 한꺼번에 물품이 물리는 경우를 막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담당직원과 전달일정 및 장소를 사전에 약속
- 4) 영수증 수령



● 언론보도를 원하는 경우는 보도를 원하는 언론사 총무국을 방문하시거나 해당 언론사 성금모금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는 전국재해구호협회 홈페이지(www.relief.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재해구호 자원봉사 참여하기**

1) 재해구호자원봉사자는..

- 근로봉사 (구호품 세트화 작업 및 분배, 급식, 청소 등)
- 기능봉사 (집수리, 도배, 차량봉사 등)
- 상담봉사 (심리상담, 청소년 상담 등)
- 의료봉사 (의료상담, 무료진료, 물리치료, 간병 등)
- 전문봉사 (인명구조, 통신, 전기, 가스, 중장비 지원 등)
- 업무지원봉사 (정보수집, 자원봉사 상담·접수 등)



2) 재해구호 자원봉사자의 마음가짐

- 본인의 능력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한다.
-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가까운 자원봉사센터와 의논한다.
- 약속시간 지키기, 이재민의 사생활 지켜주기 등 이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동을 하도록 한다.
- 봉사활동후에는 활동사항, 개선점 등에 대한 봉사활동일지를 기록한다.



3) 재해구호자원봉사자가 주의해야 할 점

- 방송이나 신문에 등장하기 위해 지나거나 카메라 주위를 맴돌지 않도록 한다.
- 재해현장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개인활동보다는 단체활동을 하도록 한다.
- 이재민들의 예민한 반응에 대해 불평하지 않도록 한다.
-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경솔하게 떠맡지 않도록 한다.
- 밝고 웃는 얼굴로 활동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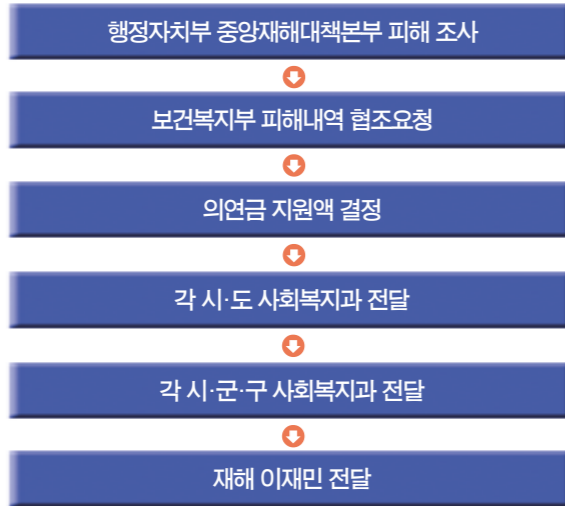


4) 재해구호자원봉사자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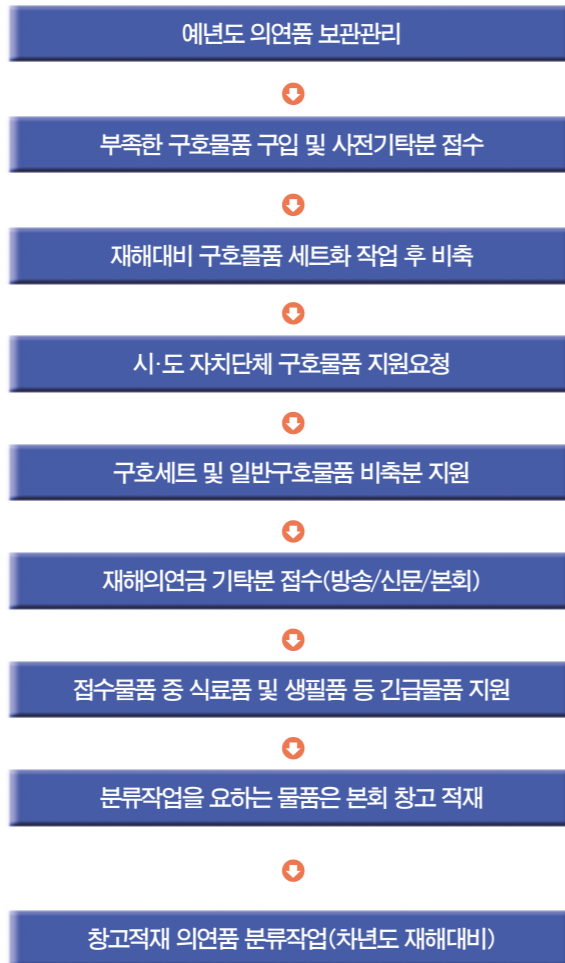
협회 자원봉사과 02-3272-0123
 홈페이지(www.relief.or.kr)
 국번없이 1365로 연락.

● 의연금품지원절차

1) 성금 지원절차



2) 물품 지원절차



● 2004년 구호계획

1) 목적

매년 뜻하지않은 각종 재난재해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 그 피해규모도 시간이 지나면서 대형화되고 있다. 우리 국민은 크고 작은 재난재해가 닥칠때마다 동포애와 환난상휼의 정신으로 이를 슬기롭게 대처해왔다. 국가는 재난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위해서 선진 시스템을 도입, 피해 최소화 노력에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재난재해 발생시에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접근, 이를 극복해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이에 협회는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이재민을 구호하고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의연금품 모집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다.

2) 모금 목표액 : 700억원

3) 모집 기간 : 대규모 재해발생 시

4) 모금 내역

▶ 기탁모금 및 ARS 모금

▶ 지 역 : 전 국

▶ 대 상 : 재해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각 신문사·방송사 및 협회등에 기탁되는 국민의 연금품과 해외동포로부터 기탁되는 의연금품.

▶ 방 법

• 각 신문사 및 방송사에 기탁되는 의연금은 종합구호계획에 의한 중앙일원화 방침에 따라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및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집금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 단, 신문·방송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언론사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직접 송금.

• 중앙언론기관에 접수된 의연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수령하여 재해지역 행정기관의 요청 및 재해지역 이재민기탁수와 재해피해액에 의거 균등하게 배분하고, 재해피해지역 언론기관에 접수된 의연금은 해당 시·도 재해대책본부 및 지역 적십자사에 전달하여 직접 이재민에게 배분. 단, 재해발생지역이 아닌 시·도 및 언론기관에 접수된 의연금은 해당 적십자사에 전달하거나 본협회와 협의하여 전달함.

• 각 시·도 및 시·군·구에 기탁되는 수재의연금은 자치단체에서 접수를 대행 언론기관이나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이관.

• 재해지역 행정기관에 지정기탁된 수재의연금은『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의하여 사용되 사용내역을 보건복지부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에 통보하여 재해의연금 지급시 정산.

• 언론기관은 특정인이나 전달처를 지정한 수재의연금품은 접수할 수 없으며 기탁자가 지정기탁을 희망할 경우 직접 희망지역에 전달.

• 공무원 모금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조를 받아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중 4급 이상, 국영기업체 및 산하단체, 금융기관근무 임직원 등으로부터 이재민구호를 위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재해의연금품을 기탁하도록 하고, 모집된 의연금품은 언론기관에 전달하도록 협조외.

- 기업체 모금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산하 회원기업체에 협조서한을 발송하고 이재민구호를 위한 의연금모금 참여 의뢰.
- 각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 서한을 발송하고 재해의연금 모금에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 의뢰.

5) 의연금품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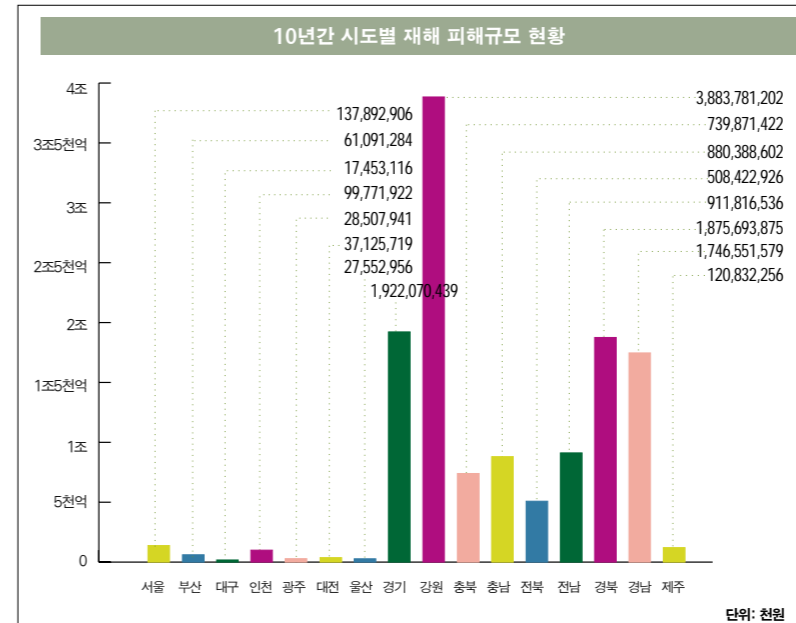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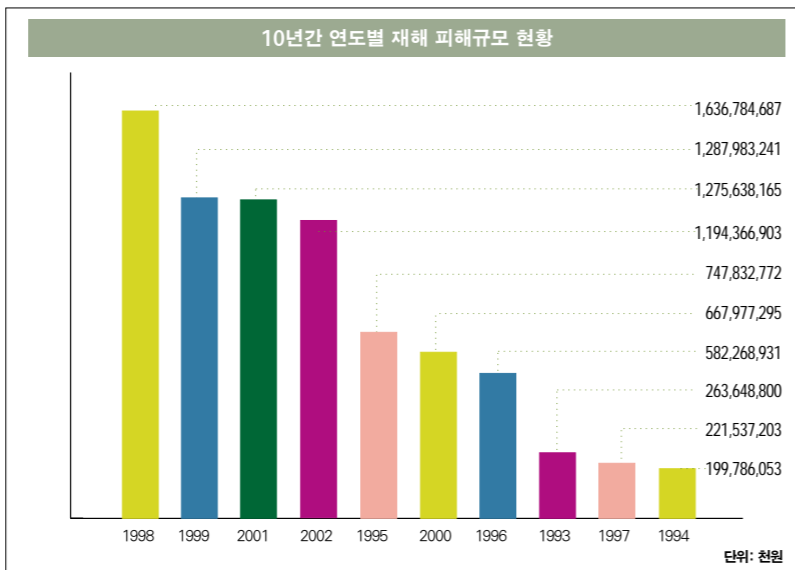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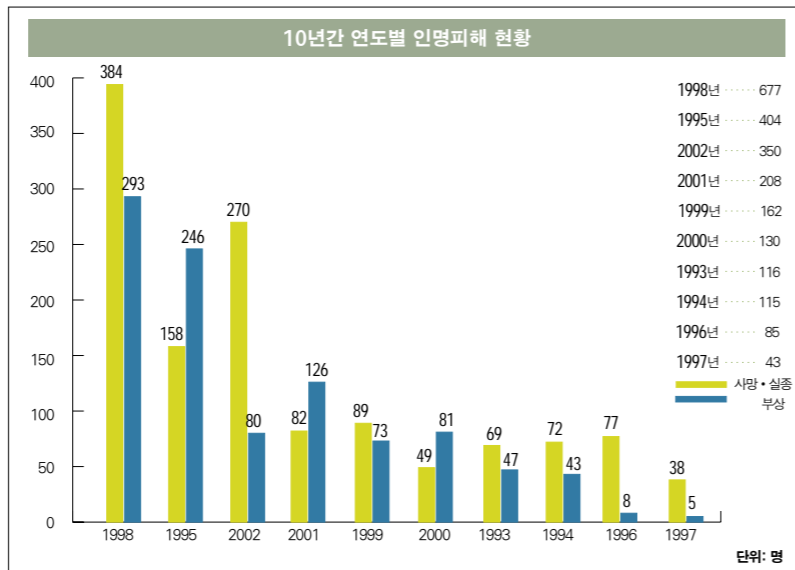
- 모금된 의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비로 지원하거나 보건복지부 훈령 제120호 의연금품 관리·운용 규정에 따라 특별위로금으로 사용.
- 모집된 의연금품은 재해지구 재해대책본부 및 대한적십자사에 배정하여 이재민에게 배분.
- 모집된 의연금 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재해의연금품모집·집행의 사업비 등으로 사용.
- 의연금품 모집과 복구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모집내역 및 집행내역공개.



재해평가와

통계로 본 모금 · 집행 및

● 재해



10년간 시도별-시설별 재해 피해규모 현황

시도	건물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기타
서울	10,444,796	-	70,902	82,666,762	44,710,445
부산	606,539	14,055,009	1,563	32,994,045	13,434,128
대구	267,475	-	20,852	12,654,469	4,510,321
인천	4,757,311	1,806,184	3,752,035	53,330,972	36,125,419
광주	1,743,087	-	255,866	7,206,772	19,302,215
대전	428,703	-	992,293	28,811,504	6,893,218
울산	116,290	677,983	179,601	23,920,946	2,658,136
경기	65,160,444	1,059,511	76,171,016	1,144,558,189	635,121,279
강원	94,040,882	920,846	355,436,072	3,154,677,111	278,706,291
충북	4,886,132	96,917	50,825,699	578,070,073	105,992,601
충남	9,493,152	1,497,762	58,815,376	489,662,834	320,919,478
전북	4,303,452	4,115,098	25,399,637	356,633,696	117,971,042
전남	26,675,721	11,065,833	9,209,879	648,524,601	216,340,502
경북	4,593,566	1,303,538	144,783,588	1,545,899,614	179,113,570
경남	19,790,178	9,002,460	40,387,495	1,324,411,150	352,960,296
제주	2,692,151	5,113,818	3,914,376	73,455,700	35,656,211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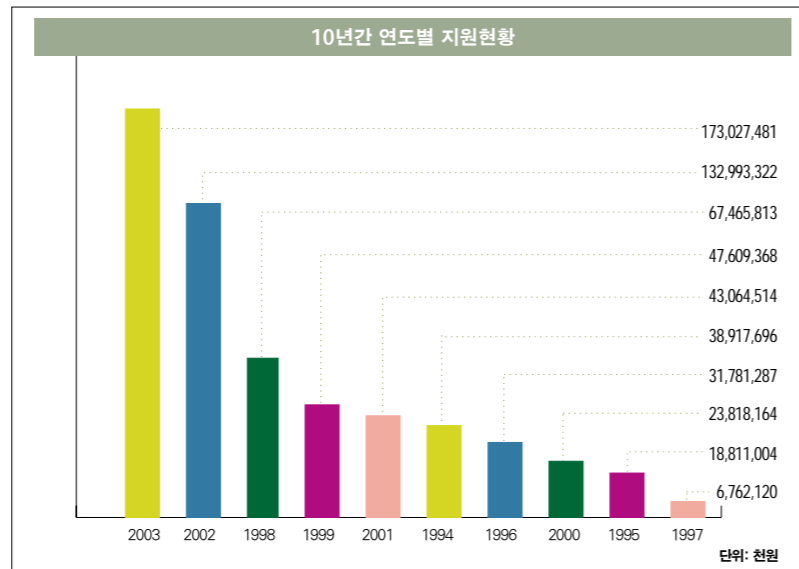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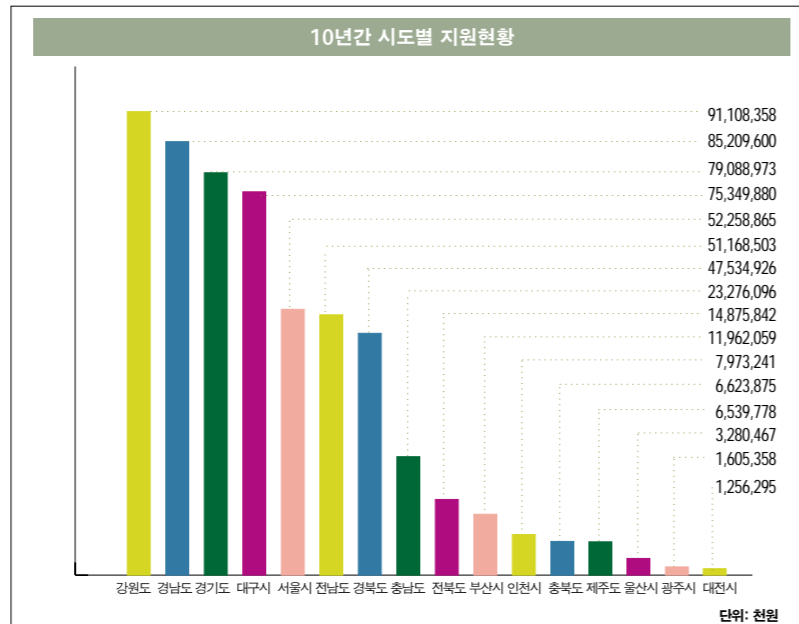
10년간 원인별-연도별 재해 피해규모 현황

원인 ·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태풍	117,581,552	26,691,080	114,319,043	-	12,142,120	284,239,848	90,130,631	151,359,250	-	5,185,728,330
호우	137,167,961	117,433,926	35,503,811	533,111,384	149,446,683	1,307,253,545	74,176,890	255,788,077	466,862,018	929,564,278
대설	9,889	-	-	1,313,647	-	-	-	-	-	-
폭풍	2,409,259	478,265	30,432,369	4,610,771	-	5,046,839	-	-	-	-
호우·태풍	-	-	567,577,549	-	-	-	1,107,824,011	260,856,925	-	-
폭풍설	6,486,921	49,359,046	-	42,886,251	24,322,379	34,028,133	15,884,841	-	808,788,965	-
기타	-	5,826,465	-	359,608	35,635,137	6,186,983	-	-	-	-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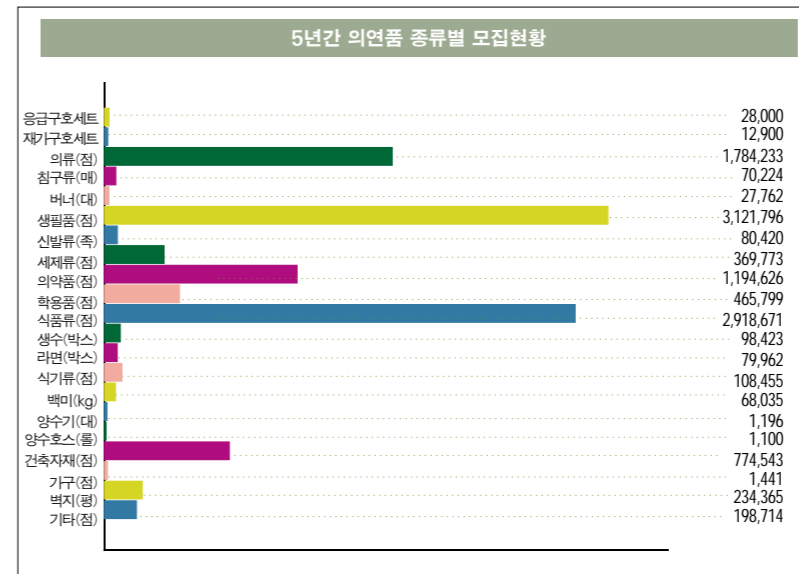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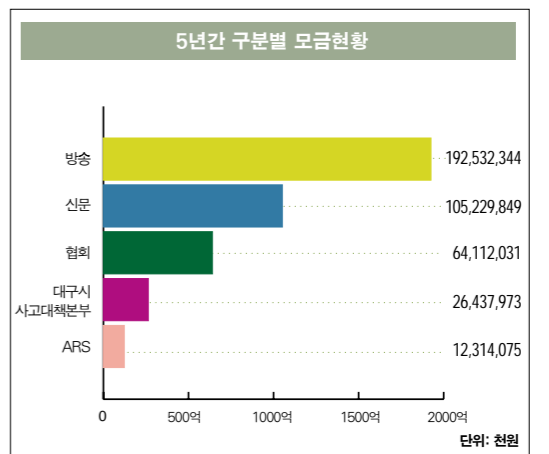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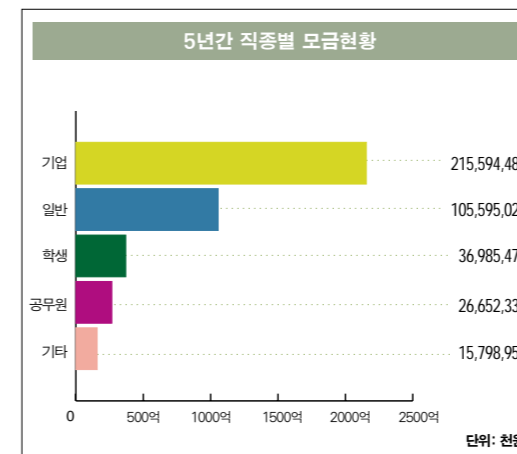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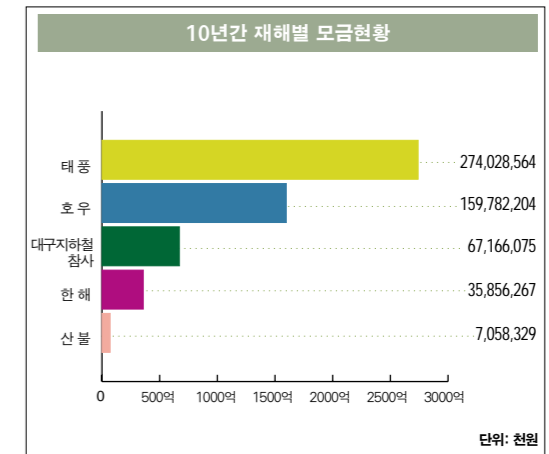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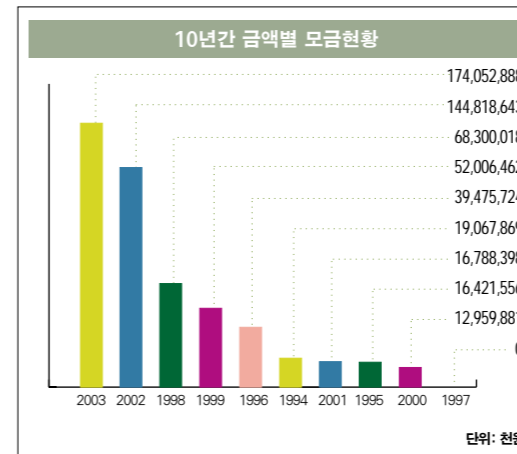
자료출처: 중앙재해대책본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40여년동안 국민들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의연금품을 재해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달해왔습니다.



5년간 의연금 시도별 지원현황

구분	물품(점)	구호세트(세트)	구분	물품(점)	구호세트(세트)
서울	28,762	5,000	경북	1,301,451	-
인천	5,724	600	충남	216,783	-
광주	3,114	-	충북	950,289	1,000
강원	1,948,781	15,800	전북	76,804	-
경기	3,014,871	8,300	전남	-	200
경남	661,596	3,400	기타	870,481	-



●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우리의 이웃들이 재해 재난을 당할 때마다 의연금품을 신속하게 지원 하는 것은 물론 관련기관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구호활동에 적극 매진해 왔습니다.

보너스

2003년

1페이지 뉴스

뉴스 > YTN 뉴스

대통령 '제이' 세금 290억 뒤로급 전달

1998. 10월 27일 월요일 1페이지 171

[박소영 기자]

한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 달 30일까지 모금한 대동 '제이' 수재민 현금 290억 1천만 원 가운데 지난 27일 오전 10시 50분쯤 박소영 기자를 통해 290억 원의 대동 '제이' 수재민들에게 290억 원의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에 지급되는 현금의 총액으로는 1600억원, 부산시와 경남남도 20억여원, 경상북도 23억여원 등입니다.

최혜자씨 사망과 도지사는 한국재해구호협회로부터 290억 원의 현금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문자] YTN & 박소영 기자

연말뉴스

재해구호를 수재민에 565억 전달

(서울=연합뉴스) 송경희기자 = 한국재해구호협회(회장 최혜자)가 27일 오전 10시 50분쯤 박소영 기자를 통해 290억 원의 대동 '제이' 수재민들에게 290억 원의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에 지급되는 현금의 총액으로는 1600억원, 부산시와 경남남도 20억여원, 경상북도 23억여원 등입니다.

최혜자씨 사망과 도지사는 한국재해구호협회로부터 290억 원의 현금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문자] YTN & 박소영 기자

2003년 10월 27일 월요일 **일간스포츠** 30면

등절기 앞둔 수재민 돕기 '사랑의 웃음 이웃에게' 의류배급 자원봉사자 신청·각계 격려전환의 밀물

일간스포츠의 한국재해구호협회, 이랜드가 공동으로 펼치는 '사랑의 웃음 이웃에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재해구호협회의 관계자는 27일 "수재민들에게 겨울 의류를 나눠주는 날도가 나온 이후 신청 자원봉사자들의 격려 전환의 밀물"이라고 말했다. 의류 이랜드그룹에도 "다른

여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자원봉사자들은 경남과 강원 등 대동 지역에서 의류를 직접 수재민들에게 나눠줄 예정. 강원도 대동 지역 T35대를 시작으로 금화 1804대, 장년 1300대, 장흥 1408대 등을 병행한다. 또 동해지역에서는 275대 대동 지원하며, 마산과 함양 개개 동 경남지역 380대 동 6000여 대



사람들 | 21

전국재해구호협회 수재민들에 100억 추가의연금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최학래·사진)는 4일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특별위로금으로 100억원의 추가의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이날 긴급이사회를 개최,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 세대중 50~80%의 피해를 입은 농어가 2만5252세대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제 3636 호 2003년 9월 22일 월요일

불황 찬바람속 '개미성금' 훈풍

호황기 2000·2001년엔 최저수준 불황 1998년·올해는 급격히 늘어 "어려울수록 남의 아픔 이해 반영"

1998-2003년 재해성금 분석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일반 국민들이 재해로 고통받는 이웃을 돕기 위해 내는 '호주머니' 돈이 더 늘어나 경제현황을 누그러뜨리는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22일 언론사와 기업체, 일반 개인 등의 재해성금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따르면 실업자 양산과 청년실업, 경기성장 둔화 등으로 세감경기가 바짝까지 떨어진 올해 전체성금액 중 일반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 회복 기원인 지난 1999-2001년보다 더욱 높아졌다.

또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7%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의 고공이 최고조에 달했던 98년에도 총 모금액이 683억원 중 일반 시민들의 성금은 288억원으로 39%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시민 성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되레 줄기 시작했다. 경제성장률이 10.9%로 경제가 급변했던 99년 총 모금액이 520억원 중 시민 성금액은 145억 6000만원, 비율은 28.1%로 떨어졌다. 아픔은 감소세는 평균 6%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던 2000년과 2001년에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 2000년 협회의 총 모금액은 129억원, 이중 일반 시민들의 성금은 174억 4000만원으로 차지하는 비율 역시 13.6%로 떨어졌고, 그 이듬해인 2001년에도 총 모금액 167억원 중 시민 비율은 16.1%(27억 7000만원)로 2년 연속 20% 미만이 떨어졌다. 이 기간동안은 재해가 없던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삶의 은택해질수록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준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TMP 때보다 더 어렵다는 올해 국민들이 보내고 있는 온정의 손길 성금은 174억 4000만원으로 차지하는 비율 역시 13.6%로 떨어졌고, 그 이듬해인 2001년에도 총 모금액 167억원 중 시민 비율은 16.1%(27억 7000만원)로 2년 연속 20% 미만이 떨어졌다. 이 기간동안은 재해가 없던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삶의 은택해질수록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준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TMP 때보다 더 어렵다는 올해 국민들이 보내고 있는 온정의 손길 성금은 174억 4000만원으로 차지하는 비율 역시 13.6%로 떨어졌고, 그 이듬해인 2001년에도 총 모금액 167억원 중 시민 비율은 16.1%(27억 7000만원)로 2년 연속 20% 미만이 떨어졌다. 이 기간동안은 재해가 없던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삶의 은택해질수록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준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TMP 때보다 더 어렵다는 올해 국민들이 보내고 있는 온정의 손길 성금은 174억 4000만원으로 차지하는 비율 역시 13.6%로 떨어졌고, 그 이듬해인 2001년에도 총 모금액 167억원 중 시민 비율은 16.1%(27억 7000만원)로 2년 연속 20% 미만이 떨어졌다. 이 기간동안은 재해가 없던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삶의 은택해질수록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준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TMP 때보다 더 어렵다는 올해 국민들이 보내고 있는 온정의 손길 성금은 174억 4000만원으로 차지하는 비율 역시 13.6%로 떨어졌고, 그 이듬해인 2001년에도 총 모금액 167억원 중 시민 비율은 16.1%(27억 7000만원)로 2년 연속 20% 미만이 떨어졌다. 이 기간동안은 재해가 없던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삶의 은택해질수록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준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권상우·이효리 '5분 대기조'

'재난구호 출동 1순위' 남녀 연예인에 뽑혀

권상우와 이효리가 지진이 났을 때 현장으로 가장 빨리 달려가 구호활동을 벌일 것 같은 남녀 연예인으로 뽑혔다.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서울의 남녀 직장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지진이거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으로 가장 빨리 달려갈 것 같은 연예인'을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남자 부문에서는 권상우가 28%인 140표를 획득, 1위에 올랐다. 여자 부문 1위인 이효리는 25%인 125표를 얻었다.

남자 부문에서는 차인표(115표) 강호동(80표) 안성기(69표)가 그 뒤를 이었으며, 여자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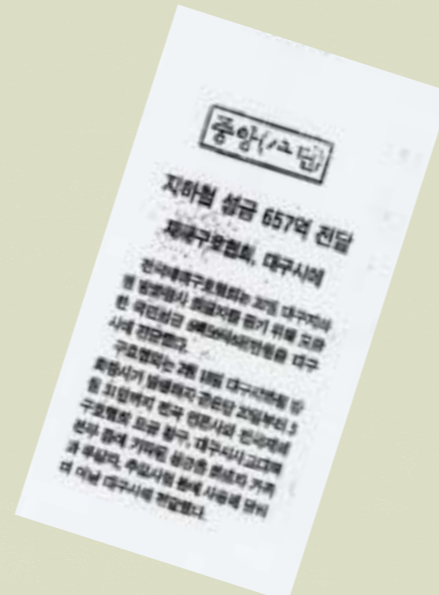


권상우

이효리

(85표) 하지원(70표)이 각각 2~4위를 차지했다.

또 '구호현장 후방에서 성금으로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같은 연예인'을 묻는 설문에서는 차인표·신애라 부부가 40%인 200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연말뉴스

"지진 구호활동 앞장설 연예인 1위 이효리"

(서울=연합뉴스) 평온습기자 = 지진이 발생한다면 현장에 가장 빨리 달려가 구호활동을 펼칠 것 같은 남녀 연예인으로 영화배우 권상우, 가수 이효리가 꼽혔다.

9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따르면 서울시내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자 연예인 중에서는 권상우가 28%의 지지를, 여자 연예인 중에서는 이효리가 25%의 지지를 얻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차인표(23%), 강호동(16%), 안성기(12%)도 현장에 직접 출동할 것 같은 연예인으로 꼽혔고 김광민(18%), 양미경(17%), 하지원(14%)도 높은 지지를 얻었다.

직장인들은 또 구호현장 후방에서 성금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같은 연예인으로 차인표, 신애라 부부(40%)와 강호동(35%)을 꼽았다.

jamin74@yna.co.kr

조선(2판) 2003. 5. 21

지하철참사 국민성금 대구시에

구호금 656억원 전달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를 돕기 위해 본 국민이 모은 성금 656억원이 대구시에 전달됐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20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협회 관계자 및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에 전달식 행사를 갖고, 차인표(115표) 차인표, 신애라 부부(40%)와 강호동(35%)을 꼽았다.

시에는 이날 모은 성금으로 희생자 유가족 및 부상자 의료비 지원, 특별회교구구 지원금 조성 등 피해 구호사업 등에 사용키로 했다.

/별문류기자

연합뉴스

재해구호협 수재민에 565억 전달

(서울=연합뉴스) 황경록기자 =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최학리)는 지금까지 모금된 성금 755억 중 565억원을 대동 '매미' 피해지역 수재민들에게 우선 전달키로 했다.

성금은 태풍피해가 가장 심했던 경남에 315억여원이 전달되는 것을 비롯, 부산 69억여원, 강원도 62억여원, 경북 41억여원, 전남 32억여원, 대구 22억여원 등이 지원 예정이다.

최학리 회장은 "아직 모금이 종료되지 않았으나 긴급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재민들을 위해 성금중 일부를 먼저 전달키로 했다"며 "현장조사자료를 기초로 각 시도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hjh@yna.co.kr

(광) 송고일 : 20030929

연합(2판)

지하철참사 656억

전국재해구호협회 대구시에 전달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최학리)는 20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협회 관계자 및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에 전달식 행사를 갖고, 차인표(115표) 차인표, 신애라 부부(40%)와 강호동(35%)을 꼽았다.

시에는 이날 모은 성금으로 희생자 유가족 및 부상자 의료비 지원, 특별회교구구 지원금 조성 등 피해 구호사업 등에 사용키로 했다.

YTN

재해구호협회, 수재의연금 모금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대동 '매미' 피해지역 수재민들을 위해 수급 지원금을 모집할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오늘부터 성금을 모아 특별한 50여억원을 달성한 뒤 최대가 입한 남부지역과 강원도 등 피해 피해지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모금에 참여할 시민은 각 언론사와 SMS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03-09-14 21:02 박종규

"고맙습니다. 658억원을 모아주셨습니다"

지난 2월 대구 지하철 참사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부상자에게 대인간 돕는 마음으로 모은 성금 658억원이 전달됐다.

이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참사 유가족과 고령자는 우리끼리 아끼고 아끼고 모은 돈과 다시 모은 수 15억 4천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4500명의 국민, 그리고 4000여 개 기업과 단체에서 유가족과 실종자 유가족에게 658억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재해구호협회는 이 성금을 지난 9월 20일 대구시에 전달했다. 전달된 대구시청 유가족 및 부상자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학리 회장 주재로 성금 전달식이 열렸다.

성금 모금에 참여한 국민 4500여 명이 손조르게 기부한 일 수 1500여 건은 재해구호협회 차선 123개사 전사 : 659억 / 56억 / 969억

대구지하철참사참사 상금모금 및 집행내역	
- 총모금액	658억 5천 2백만원 (서울 176 천)
- 총지출액	656억 6천만원
- 모집액	1억 5천 2백만원 (대구광역시)
- 성금기부자	국민 4500명, 4000여 개 기업 및 단체
- 모금참여 전사	123개사 전사 : 659억 / 56억 / 969억

전국재해구호협회



- 주최: 롯데백화점 - 후원: SBS, YWCA, (사)전국재해구호협회 - ~9/21일까지 | 롯데백화점 전점



문화일보 2003년 10월 30일 목요일 제 3669 호 禮記4336年(陰 10월 6일 丙子)

불황속 을 재해성금 사상 최대 1700억

올해는 경제불황 속에서도 재해성금 모금이 이미 사상 최대인 17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특유의 국민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를 자원 봉사 및 기부 문화 정착의 계기로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지난 2월 대구지하철 참사와 9월의 태풍 '매미' 피해 등 초대형 재해가 많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사후에 성금을 모금하는 것보다 사전에 보다 철저한 방재시스템을 갖추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0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따르면 올해 재해성금 모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	재해구호성금 변동 추이 (단위: 억원)
1998년 9월	683
2000년 11월	520
2001년 12월	129
2002년 12월	167
2003년 10월	1448
2003년 10월	1678

1448억 원에 상회,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또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관객심자사가 주최한 '수해구호기금 마련을 위한 비자' 등 모금행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연말까지는 2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단일 재해보는 지난해 태풍 '루미' 피해 성금(1448억 원)이 최대 규모지만 올해는 연이어 대형 재해로 지난해 모금치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지난 4년간 재해성금 총액은 5760억 원이다. 대구지하철 참사 성금은 기탁액 대비 기업체 58%, 일반인 22%, 공무원 8%, 학생 7% 등 순이었다. 태

한국경제

"자원봉사자 상시 확보 할 것" 최희태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최희태 회장 "자원봉사자 상시 확보 할 것" 최희태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최희태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은 30일 서울에서 열린 '2003년 자원봉사자 상시 확보 방안' 세미나에서 "자원봉사자 상시 확보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최 회장은 "재해구호는 자원봉사자의 헌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해구호는 자원봉사자의 헌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해구호는 자원봉사자의 헌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2003년 9월 17일 수요일



상실그물 수혜의연금 100억 기탁

상실그물 수혜의연금 100억 기탁

전국재해구호협회는 30일 서울에서 열린 '2003년 자원봉사자 상시 확보 방안' 세미나에서 "자원봉사자 상시 확보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최 회장은 "재해구호는 자원봉사자의 헌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불황속 을 재해성금 사상 최대 1700억

올해는 경제불황 속에서도 재해성금 모금이 이미 사상 최대인 17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특유의 국민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를 자원 봉사 및 기부 문화 정착의 계기로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지난 2월 대구지하철 참사와 9월의 태풍 '매미' 피해 등 초대형 재해가 많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사후에 성금을 모금하는 것보다 사전에 보다 철저한 방재시스템을 갖추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0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따르면 올해 재해성금 모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	재해구호성금 변동 추이 (단위: 억원)
1998년 9월	683
2000년 11월	520
2001년 12월	129
2002년 12월	167
2003년 10월	1448
2003년 10월	1678

1448억 원에 상회,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또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관객심자사가 주최한 '수해구호기금 마련을 위한 비자' 등 모금행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연말까지는 2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단일 재해보는 지난해 태풍 '루미' 피해 성금(1448억 원)이 최대 규모지만 올해는 연이어 대형 재해로 지난해 모금치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지난 4년간 재해성금 총액은 5760억 원이다. 대구지하철 참사 성금은 기탁액 대비 기업체 58%, 일반인 22%, 공무원 8%, 학생 7% 등 순이었다. 태

김민준 기자



<8뉴스>

전국 재해 구호협회는 대구지하철 참사 국민 성금 656억원을 20일 대구시에 전달했습니다.

재해 구호협회는 지난 3월 말까지 전국의 언론사에서 모은 387억 원과 사고대책본부에 기탁된 264억 원 등 총 656억 6천만 원을 대구시에 전하고 희생자 가족과 부상자의 위로

금, 그리고 추모사업 등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정은 기자 jamie@admin.kias.re.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현도 관계자들이 구호물품을 차고 싣고(위 사진) 강원·경북 지역의 수해지역을 찾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아래 사진)

따뜻한 사랑... 잘 입을게요

본지·이랜드 등 공동캠페인 '사랑의 옷...' 강원 경북 수해 6000여세대에 겨울 파카 전달



"수레로 거를 듯이 모두 못 쓰게 된다... 정말 잘 입을게요."

이현도와 전국재해구호협회, 일간스포츠가 공동으로 펼치는 '사랑의 옷을 이웃에게'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캠페인 관계자들과 양정순, 서연희 기자, 자원봉사자들이 강원, 경북의 구석구석으로 500여 세대를 찾아가는 겨울 의류를 나눠준다.

정북 양양과 괴곡읍 인근 허름한 집에 도착해 흥분하는 이주민 할머니(83). '서울에서 겨울 장바구니 가져 왔다'고 자랑 '방으로 들어오라'며 반가워하면서 연신 고마움을 표시했다. 겨울 오만할 과거를 전달받은 이주민 할머니의 모습을 볼까 웃음으로 바뀌었다.

입안만에 싣고 있는 정신 지체 장애자 부부에게도 옷이 전달됐다. 연신 고맙다는 말을 표시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일행은 또 다른 수해 세대를 찾아 나섰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물론 일반인들에게까지 초콜릿과 따뜻한 차를 나누어주고 사이다가 딱지 있을 때는 휴스에서 고

품분주기도 했다. 협회 정경사원으로 유명한 배산리 대리는 4명 정경로 봉포봉의 사(사)를 받기도 했다. "할머니 오려오려 사세요." "정말 너무 잘 어울립니다." "하소지지만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을 지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연신 찾아오는 정북 직원들과 사회봉사자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주민의 마음을 한결 더 녹여준다. 거가호호 각 세대를 찾아가며 전달한 작은 사랑과 사정이 겨울·겨울 극복의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란다. 이현도. / 협회와 전국재해구호협회 기획홍보팀장 weon@relief.or.kr

이런 것 알고 있나요?

소년한국일

<재해 의연금 모금과 전달>

제14호 태풍 '매미'가 한가위 연휴 남부 지역과 강원도 지역을 강타하면서 120 명이 넘는 사망·실종자가 발생했어요. 재산 피해만도 4조 5000억 원을 넘어서고, 1만 2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냈지요. 그리고 수확을 앞둔 벼가 물에 잠기고 양식장이 망가져 농·어민들의 시름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태풍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당한 수재민을 돕기 위해 범국민적인 성금 모금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언론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지자체 단체 등에는 성금과 물품 등 도움이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ARS(060-700-1004)를 통해서도 많은 성금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재 의연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마련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호대상 중복·누락 방지 위해 의연금품을 한데 모아 관리해요

재해 발생 후 각급 학교 등에서 모은 성금은 언론사 등을 거쳐 전국재해구호협회로 보내진 후, 이렇게 모인 국민들의 성금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복구 계획에 따라 각 시·군·구에 전달되어 구호비 및 위로금 등으로 사용됩니다.

금 모금은 어디에서 주관하냐? 대인들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고 및 배분하는 일은 전국재해구호협회입니다. 정부 수립 이전부터 언론사에서는 수재가 발생했을 때 의연금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의 자선단체에 따라 집행되어 의연금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이러한 문젠데요.

한편 ARS를 이용한 성금 모금은 한 통화에 2000 원이 부과되며 모금된 2000 원 전액이 이재민에게 전달됩니다. 일반적으로 방송국 등에서 펼쳐지는 퀴즈 등 이벤트의 경우는 총액의 10%를 통신 업체에서 수수료로 가져가지만 재해 성금 모금 등의 공익적 사업에는 통신 업체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재해 구호협회에서는 모인 성금을 직접 이재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재해대책본부의 복구 계획에 따라 각 시·도 사회복지과로 성금품을 전달합니다. 이는 재해 구호협회에서는 모인 성금을 직접 이재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재해대책본부의 복구 계획에 따라 각 시·도 사회복지과로 성금품을 전달합니다.

동아일보(2003년 9월 18일 목요일) 투데이 20면



정동구 회장 손길순 회장 이준용 회장 김승민 회장 조석래 회장 현재현 회장

현대차 50억원, SK 52억5000만원 상당 물품-성금

대림 10억 한화 7억

대기업과 외국기업의 수재복구 성금 기탁이 줄을 잇고 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몽구(鄭夢九) 회장과 임직원들은 17일 수재복구 성금으로 50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이와 별도로 수해차량 무상정비 및 수리비 지원 등을 통해 10억원을

이런 태풍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재해 복구 작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화그룹(회장 김승연·金昇淵)은 7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한화는 이에 앞서 수재복구 지원을 위해 부산, 경남 김해 마산 창원 진해, 전남 여수, 경북 경주, 강원 강릉시 등에 500명 규모의 자원봉사단을 파견했다. 효성그룹(회장 조석래·趙錫來)은 3억

사랑 나누기 42년

2003년 한해도 1,700억원의 사랑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 40여년동안 수많은 이재민들에게

국민들의 정성과 사랑을 전하는 가교가 되어왔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이웃을 생각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수많은 불씨가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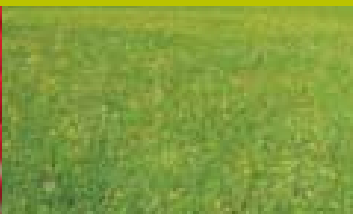
재해극복의 등불이 되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이재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더 튼튼한 가교가 되려고 합니다.





발행처 전국재해구호협회
발행인 최학래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371-19
Tel: 02)3272-0123(대)
Fax: 02)3272-0122
<http://www.relief.or.kr>